

중국 조선족 아동의 이중언어 경험과 상위인지능력과의 관계 -기수성을 중심으로-

이 귀 옥* (경성대 생활경영학과 교수)

이 해 련 (경희대 생활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Bialystok과 Ryan(1985)이 상위인지능력이 지식의 분석과 처리과정의 통제라는 두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모델을 제시한 이후로, 이중언어 사용이 상위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져왔다. 언어과제나 카드과제를 실시한 연구에서는 한국어 이중언어 아동들을 포함하여 이중언어아동들이 상위인지능력 중 더 고차원적인 능력인 통제능력에서 단일언어 아동들에 비해 더 뛰어나다는 것이 밝혀졌다. 수개념발달과 관련되는 기수성 과제를 이용한 기존 연구에서는 영어-중국어 이중언어아동들이 영어 단일언어 아동들보다 통제과제에서 더 뛰어나다고 보고하였다(Bialystok & Codd, 1999). 그러나 한국어의 수체계는 한글과 한자의 두가지이므로 세가지 수체계를 습득하는 한국어 이중언어 아동들에게 기존연구를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중국어 이중언어경험이 카드과제와 기수성과제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4,5,6세 이중언어아동인 중국조선족 아동 58명과 한족 아동 53명을 대상으로 상위인지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카드분류검사와 기수성검사를 실시하였고, 기억력에 의한 인지적 수준이 같은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억검사를 공변량으로 3(연령)X2(언어경험) ANC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카드과제에서는 연령과 언어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통제과제와 지식과제를 더 잘 하고, 이중언어집단이 통제과제를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연구를 지지하였다. 기수성과제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만 유의하게 나타나 분석과제와 통제과제 모두 연령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집단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인지능력의 차이때문이라기보다는 수개념발달에 있어서의 차이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세가지 수체계를 습득하는 중국조선족 아동들은 한가지 체계만을 습득하는 단일언어 아동들보다 수개념발달자체가 더 늦어질 것이고 이렇게 볼 때 기수성 과제에서 언어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는 것은 이중언어아동의 향상된 인지능력이 수개념발달을 도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한국어 이중언어아동, 한국어 단일언어 아동, 그리고 한가지 수체계를 사용하는 단일언어 아동들간의 수개념발달과 인지발달에 관련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